

美國大統領 및 議會選舉 結果分析

1996. 11.

金 國 新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민족통일연구원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 目 次 -

I. 問題提起	1
II. 選舉의 特徵과 意味	2
1. 特徵과 結果	2
2. 클린턴 大統領의 勝因	6
3. 選舉結果의 意味	7
III. 클린턴 執權 2期 政策方向 展望	9
1. 向後 政局 展望	9
2. 國內政策 展望	9
3. 對外政策 展望	11
IV. 對韓半島政策 展望	13
1. 對韓 安保政策 展望	13
2. 對北政策 展望	13
3. 通商政策 展望	15
V. 우리의 考慮事項	16

I. 問題提起

- 美공화당은 캘리포니아州 샌디에고 全黨大會(1996.8.12~15)를 통해 돌(Bob Dole)과 캠프(Jack Kemp)를, 美민주당은 일리노이州 시카고 전당대회(1996.8.26~29)에서 클린턴(William J. Clinton)과 고어(Albert Gore, Jr.)를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본격적인 유세활동을 전개하였음.
- 클린턴 대통령은 대통령 選舉人團 투표(1996.11.5)에서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훨씬 넘는 3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함으로써 제43대 대통령에 취임(1997.1.20), 2001년 1월까지 4년간 미국을 이끌게 되었음.
- 美國 상·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지켜 1994년 이후 지속되어 온 민주당 백악관, 공화당 의회의 與小野大현 정국구도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되게 되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대통령 및 의회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국의 대내외정책 및 對韓半島政策의 변화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II. 選舉의 特徵과 意味

1. 特徵과 結果

- 대통령 선거전은 클린턴과 둘 양 후보간 인물·세대간 대결로 전개되는 가운데 支持度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둘 후보를 10~20% 차이로 계속 우위를 차지하는 양상을 나타냈음.
-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시한 政綱政策(<표 1> 참조)에는 보수·진보의 분명한 이념적 차이가 표출되지 않았으며 선거기간 중 두드러진 쟁점도 부각되지 않았음.
 - 양당은 적자예산 감축, 의료체계 개선, 세금 감면, 자유무역 강화 등에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다만 정책의 실시 시기와 정도의 차이를 달리하고 있었음.
 - 對外問題는 선거기간 중 주된 쟁점으로 대두되지 않았음.
 - 공화당은 援助 中斷 등 대북 강경책을 표명하였으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음.
- 둘 후보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우위가 확고하자 국민들은 선거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1억 9천만명의 유권자 중 49%만이 투표에 참가하였음.
 - 대통령 선거에서 1924년이래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함.

<표 1>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 비교

구분	민주당	공화당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정부의 직접 역할 유지 -行政改革위를 통한 관료기구 축소 -2002년까지 균형예산 달성 -복지예산 삭감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 -상무·주택·교육·에너지部 기구 축소 등 과감한 행정개혁 -2002년까지 균형예산 달성 -국방예산 삭감 반대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落胎의 자유 인정 -동성연애자에 대한 차별반대 -공립학교 祈禱 時間 반대 -복지제도 합리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태 원칙적 반대 -동성간 결혼 합법화 반대 -공립학교 기도 시간 허용 -복지제도 축소
경제·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1인당 5백달러 減稅 -환경예산 삭감 반대 -슈퍼 301조 적극 활용 -WTO 지지 -NAFTA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율 15% 인하 -21세기 對備 과학기술 혁신 -슈퍼 301조 강력 집행 -WTO의 미국 주권침해 불용 -NAFTA 비판적 지지
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 협력강화와 군축추진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단계적 배치 -포괄적核實驗금지조약(CTBT) 체결 지지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출 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TMD 早期配置 강력 추진 -CTBT 반대 -핵실험지속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알래스카·하와이 공격위협 불용, 차단노력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 계속 유지 -제네바 核합의 충실 이행 -臺灣 관계법 존속,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 -러시아와 협력관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 계속 유지 -북한에 대한 宥和政策 중단 -대만 관계법 존속,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 -러시아에 대한 강경입장 고수

- 개표결과는 클린턴 대통령 49%, 둘 후보 41%, 개혁당(Reform Party) 페로(Ross Perot) 후보 8%의 得票率로 나타났음.
 - 녹색당(Green Party) 후보 내이더(Ralph Nader) 등 群小 候補 19명은 전체 유효투표의 2% 수준인 130만표 정도 획득.

-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다수득표 정당이 그 州에 배당된 선거인단 대표 전부를 획득하는 勝者獨占方式(winner-take-all)을 택하고 있는 바,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클린턴 대통령은 31개州와 워싱턴특별구의 선거인단 379명, 둘 후보는 19개주의 선거인단 159명을 확보하였음.
 - 각 주 선거인단 수는 연방의회 상·하원 의석수를 합계한 것과 동수이며 워싱턴 특별구의 선거인단은 3명임.

- 선거의 승패는 사실상 선거인단을 선출한 11월 5일 투표 결과로 확정되지만 대통령 선거가 公式的으로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님.
 - 각 州 선거인단은 12월 16일 각각 州 首都에 모여 투표한 뒤 그 결과를 밀봉, 의회에 보냄.
 -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개표(1997.1.6)하여 상원의장이 당선자를 공식 선포함.

- 上院 1백명 중 1/3인 34명을 새로 선출한 상원선거에서 공화당이 21석, 민주당이 13석을 각각 확보하였는 바,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배분이 55:45로 공화당의 우위가 더욱 확실

해 졌음(<표 2> 참조).

- 改選 34석 중 공화당 보유의석이 19석, 민주당 보유의석이 15석이었음.

○ 435명 全員을 선출하는 하원선거에서도 공화당은 226석을 확보한 반면, 민주당은 207석에 머물렀음.

- 선거전 공화당 235석, 민주당 197석, 무소속 1석, 空席 2석이었음.

<표 2> 미국 상·하원 및 주지사 의석수

	상 원 (34/100)		하 원 (435/435)		주지사 (11/50)	
	민 주	공 화	민 주	공 화	민 주	공 화
당 선	13	21	207	226	7	3
잔 류	32	34	0	0	11	28
계	45	55	207	226	18	31
변 동	-2	+2	+10	-9	0	0

※ ①(선출인원/현직)

②하원 2명, 주지사 1명은 무소속

○ 주지사 50명 중 11명을 새로 선출하는 주지사 선거 결과, 민주당은 7개주에서 공화당은 4개주에서 승리하였으나 정당별 주지사 분포는 변화가 없음.

- 주지사는 州別 任期(47개州 4년, 3개주 2년)가 다른 바, 선거 시 마다 改選 범위가 다름.

2. 클린턴 大統領의 勝因

- 클린턴 大統領의 勝리는 그의 임기중 財政赤字 축소와 경기부양 등 국내 경제정책의 성과에 힘입은 바 컸음.
 - 집권 4년간 1,000만명의 고용창출, 국내총생산(GDP)의 9.5% 성장, 물가안정, 재정적자 半減 등이 달성되었음.
 - 둘 후보가 내건 15% 소득세율 인하 공약은 경제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인식되었음.

- 73세 高齡의 둘 후보가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 따른 상대적 이익도 주요 요인이 되었음.
 - 공화당 부통령 후보 챔프도 민주당 부통령 후보 고어 보다 支持度에서 뒤졌음.

- 1994년 中間선거 이후 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한 공화당의 과격한 개혁조치도 反射利益을 제공하였음.
 - 킹리치(Newt Gingrich)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 보수세력은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삭감, 연방정부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해 국민들의 반감을 자극한 바 있음.

- 한편 클린턴 大統領은 집권초기의 진보적 노선을 포기하고 중도노선을 채택하여 초당적인 國政指導者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온건 보수성향의 중산층 표를 획득하였음.
 - 세금·교육·의료보장·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 중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클린턴 대통령은 信賴性 문제로 인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으나 선거기간 중 그의 부도덕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는 포착되지 않았음.
 -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 여성편력, 선거자금 등과 관련한 스캔들이 지속되었음.
- 공화당은 의회선거에서 개혁정책의 실패로 인한 苦戰이 예상되었으나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의 균형을 이루게 하려는 미국 유권자들의 傳統的 心理에 힘입어 선전하였음.

3. 選舉結果의 意味

-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은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前대 대통령이 4선을 기록한 1944년 이후 52년만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連任에 성공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음.
 - 공화당이 68년만에 달성한 상·하원 다수당 방어 역시 클린턴의 재선에 못지 않는 중요성을 갖고 있음.
- 그러나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 지배의 권력구도가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에서는 現狀維持 선거이었음.
- 클린턴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중산층의 日常的 關心事들을 강

조한 반면,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에 관해 심도 있는 論爭을 거치지 않아 향후 대내외 정책이 현상유지적 경향을 띄게 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음.

- 클린턴 대통령은 주요 언론으로부터 再選은 됐지만 역사에 남을만한 대통령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민주당 후보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되었지만 이번 선거는 1980년 공화당 후보 레이건(Ronald Reagan)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진전되어 온 保守化 傾向이 미국사회의 이념적 대세임을 재확인시켰음.

-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기본 성격을 진보 對 보수의 대결이 아닌 중도 對 극단보수의 대결로 선전하여 중산층 지지기반을 확대하였음.
- 미국인의 정치성향에 대한 여론조사는 보수주의자 34%, 온건중도주의자 44%, 진보주의자 16%를 각각 나타낸 바 있음.

Ⅲ. 클린턴 執權 2期 政策方向 展望

1. 向後 政局 展望

- 클린턴 대통령은 中道主義(centralism)가 민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정책의제를 이 방향에 맞출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바, 공화당내 온건보수 세력을 포용하면서 정국안정을 꾀할 것으로 예측됨.
 - 클린턴은 차기 내각에 공화당 인사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공화당은 과격한 극우세력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대신 中道 右派의 발언권이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의회 운영에서 극단적인 태도보다는 온건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의석을 장악한 제105차 의회가 開院되면 클린턴 대통령의 도덕성에 대한 시비로 정국이 경색되겠지만 점차 양당이 實用主義 立場에서 대내외정책에 협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클린턴 집권 2기는 비교적 순항할 것으로 전망됨.

2. 國內政策 展望

- 클린턴 2기 행정부의 국내정책 관련 기본성향은 대대적인 사회

- 경제적 변화보다는 安定 志向性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공화당 의회와 타협과 협상을 통해 실용적 정책목표를 추구해나갈 것으로 보임.

- 안정속의 지속적인 성장유지라는 經濟政策 基調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방재정 적자의 축소가 필수적인 바, 財政의 收支均衡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임.
 - 현재 적자규모가 1,070억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예산을 2002년까지 균형상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클린턴 행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緊縮財政을 기조로 하되 교육비 감세, 의료보장제도 지속 등의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음.
 - 2001년이면 노인층 대상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내경제의 안정성장기조 유지, 연방정부의 균형예산 확립,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등의 目標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 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輸出擴大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3. 對外政策 展望

- 클린턴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제시한 개입(Engagement)과 확대(Enlargement)의 對外政策 基本方向은 변화되지 않을 것임.
- 집권 2기의 클린턴 행정부는 국내정치보다는 外交問題에 비중을 두고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취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클린턴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地域紛爭 管理에 역점을 두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지역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룰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한 바, 事案과 지역에 따라 개입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할 것임.
- 중국·러시아·중동·보스니아 등지에서 직면하게 될 도전들은 한결같이 용이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들인 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은 클린턴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능력을 가늠하는 試金石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대만간 긴장관계 및 무역·인권·무기판매 등을 둘러싼 미국·중국간 갈등 해소 문제
 - NATO 확대에 인한 러시아와 대립해소 문제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회담 재개 등 중동 평화정착 문제
 - 보스니아에 파견된 美軍 장래 문제

-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하는 通商政策 基調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나, 교역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무역에 환경과 노동문제를 연계시키는 신무역주의 성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개방 협상은 多者間 協議過程을 중시하되 다자간 질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슈퍼 301조나 양자간 협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협정에 대해서는 이행점검을 철저히 할 것으로 판단됨.

IV. 對韓半島政策 展望

1. 對韓 安保政策 展望

- 미국의 對韓 安保政策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적정 수준의 미군을 전진배치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증대시키는 것인 바, 이러한 기본방향은 견지될 것임.
- 駐韓美軍 철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戰力과 위기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 클린턴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가운데서도 남북한 및 중국·일본·러시아 등을 포함한 동북아 多者間 安保對話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됨.
 -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가 기존의 쌍무동맹관계를 보완하면서 동북아지역 안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對北政策 展望

- 클린턴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공화당의 對北 宥和政策에 대한 비판과 북한의 무력도발 및 잠수함 침투 사건 등으로 인해 야기된 한·미간 정책 갈등 등을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

검토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북한을 일단 미국의 영향권 안에 포용하고, 대북 유화책을 계속 추진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에 軟着陸(soft-landing)시키겠다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제2기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핵동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북 제네바 합의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임.

-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對北政策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도발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남북한에 대해 균형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것임.
 -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신중하게 임하며, 북한의 벼랑끝 외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북한의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는 4자회담을 통하여 구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임.

- 이와 같이 클린턴 행정부는 남북한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반도의 安定的 管理를 모색하겠지만, 북한체제를 국제사회에 안착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3. 通商政策 展望

-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통신·자동차·지적재산권·서비스 및 농산물에 대한 市場開放 壓力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남미·아프리카 지역 등 10개국을 거대 신흥시장(Big Emerging Markets)으로 선정, 환경·정보·의료·수송·에너지·금융 등 6개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수출을 현 수준보다 75%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한국이 貿易收支 赤字國인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시장개방 압력보다는 개별분야에서 구체적인 통상협상에 더욱 주력할 것임.
 - 1996년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약 100억달러에 달함.

-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진출 등을 명분 삼아 시장개방 이외에 경제제도의 先進化를 촉구하는 각종 권고안을 제시할 것임.
 - 금융산업에 관련된 제도, 노사관련 제도 및 환경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할 것임.

V. 우리의 考慮事項

- 클린턴 대통령은 2기 임기중 對北 包容政策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바, 한·미간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며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미·북관계만 진전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함.
- 한·미 양국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안착시킨다는 대북 포용정책에 입각하여 관계개선을 추구하며, 이와 함께 북한체제 변화에 따른 不確實性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북한의 위기적 경제상황과 정권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돌발 사태에 대한 대응책도 강구해야 함.
- 대북정책에 관한 韓·美 共助體制의 핵심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그러나 남북관계의 적대적 현실과 미·북 관계개선 속도를 고려할 때 한·미 협력관계는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戰爭挑發 가능성 억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방·개혁을 통한 과거 핵투명성 확보와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현재 북한은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직접 협상만을 추구하고 있는 바, 중·장기적 대북정책 목표는 한·미공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

- 미국의 市場開放 壓力에 대해서는 국내제도를 개선하며 기존의 통상협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피해야 할 것임. 그러나 부당한 시장개방 압력이 있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력기구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함.
- 클린턴 2기 행정부는 對外政策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미국 행정부·의회·학계·기업체 등의 주요 인사들에게 대북관계 및 한·미 통상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
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의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 96-06 북한의 대 주변4국 군사관계
-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葉釐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 外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리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日本總選 結果分析
- 96-09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美國 大統領 및 議會 選舉 結果分析

統一情勢分析 96-09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2-9252, FAX: 235-5270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1월 일

發行日 1996년 11월 일
